

종기 (腫氣)

신좌섭 ■ 의사, 한국의학사

瘡疔黃



조선시대 치증서의 하나인 『36腫圖錄』의 '종기인물도' 중 하나 (필자소장)

1. 종기가 흔했던 우리 나라 뽕두라지, 옹(癰), 저(疽)라고도 불리는 종기(腫氣)가 우리 나라에 얼마나 흔했는지를 직접 말해주는 자료는 없다. 그러나 『황제소문』에는 “동쪽지역은 하늘과 땅이 시작되는 곳으로서 물고기와 소금이 많으며 바닷가에 있다. 그곳 인민들은 물고기를 먹고 찐 것을 좋아하며 한자리에 편안히 있으며 음식치장을 한다. 물고기는 사람의 속을 달게 하고 소금은 억제한다. 결과로 병은 옹저(뽕두라지)가 되는데 치료에는 돌침이 좋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동쪽지역이란 흔히 조선을 일컫는 것으로 해석된다.

마찬가지 예로서 『조선실록』에도 “조선 사람은 음식의 날 것과 찬 것을 먹기 좋아하는 고로 창종(瘡腫)이 많다고 중국 사람들이 이야기 한다”는 기록이 있다.

여기에서 거론되는 지리적

조건과 식습관이 종기발생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종기가 중국에 비해 많았음을 짐작할 수는 있다.

게다가 『조선실록』에만 통틀어 400여 건의 종기관련기사가 나오는데, 이는 아마도 단일 질병군으로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조선의 역대 왕 중에서 문종, 성종, 효종, 정조는 모두 종기가 원인이 되어 사망했으며, 사망원인이 미상으로 분류되는 왕들 중에 태종도 종기가 사망원인으로 짐작된다. 뿐만 아니라 역대 왕들 중에 종기로 고생하지 않은 왕이 없어, 종기는 국사를 자주 중단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고 외국의 사신을 접견하는 중요한 업무조차 종기 때문에 연기한 기록들이 도처에 보인다. 하물며 영양상태나 위생상태가 왕실에 비할 바가 되지 못했던 백성들의 경우 그 유병률이 높았음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2. 종기의 이미지

한번 발생하면 온 마을을 휩쓸던 역병이 나라와 공동체 차원의 우환인데 비해 종기는 개인 차원에서 그에 비할 만한 것으로서, 역병보다 일상적이고 친근하면서도 잘못 다루면 매우 치명적일 수 있는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

때문에 종기는 일상의 담화 속에서 중요한 상징으로 자리잡고 있다. 예를 들어 임금이 간신의 말을 믿고 정사를 게을리 하는 일에 대하여 『조선실록』은

“임금은 구중 궁궐 안에 깊이 거처하여 있으면서 (간신의) 말을 그대로 믿고 스스로 편안하게 여길 것이니 하루아침에 위태로운 난리가 문득 일어나서 종기가 안으로 터지는 것과 같이 되어도 구제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제물포에 왜인(倭人)의 수가 늘어나는 일은 “종기가 뱃속에 맺히는 것과 같아 언젠가는 썩어터질 것”이므로 미리 단속해야 하는 것이며, 나라의 역적은 “악성종기”에, 당론의 뒤영킴은 “큰 종기가 곧 터지려는 형국”에 비유되었다.

치료의 담화도 중요한 상징으로 자리잡고 있다. 군주에게 아첨하는 무리들은 “종기를 빨고 치질을 핏는” 자에 비유되고 “부모의 종기를 빨아 낫게 하는 일은 효의 으뜸”이며, 종기를 서로 빨아 주는 것은 장수간의 동고동락하는 의리이기도 하다. “병구완을 하며 보호하는 도리로 말하면 임금과 어버이 사이에 체모가 같지 않으므로 손가락을 자르거나 종기를 빨거나 똥을 맛보는 것이 아들에게 있어서는 효성이 되나, 종기를 빨고 치질을 핏는 것이 신하에게 있어서는 간사한 짓”이다.

이같이 종기를 빼는 일이 효의 상징이며 동시에 아첨의 상징이기도 하였고, 외간남녀간의 접촉을 금기로 알던 시대에 남자 의원이 부인네의 종기를 빼는 일이 존재했다는 것을 보면 종기가 얼마나 보편적인 질병이었으며 그 치료법이 절실히 추구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3. 종기(腫氣)의 원인

한의학에서 종기는 옹(癰)과 저(疽)를 일컫는데 “옹이란 옹(壅) 즉 막히는 증이고, 저란 저(沮) 즉 방해하는 증이며, 옹은 육부의 불화 때문에, 저는 오장의 불화 때문에 생긴다. 육부는 표(表)를 다스리는 고로 그 기(氣)가 얇으니 옹의 껍질은 얇으나 밖으로 높고, 오장은 리(裏)를 다스리는 고로 그 기가 깊으니 저의 껍질은 두껍고 단단하다”고 하였다. 오장육부의 불화가 혈기의 순행을 가로막아 종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혈기란 몸이 더우면 순행하고 차면 중지되어 종기가 발생하게 되니, ‘조선사람은 음식의 날 것과 찬 것을 먹기 좋아하는 까닭으로 창종이 많다’고 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것이 종기의 첫째 원인이다.

이와 더불어, ‘구중 궁궐에서 외출하지 아니하여 기운이 막히는 것’과 ‘기름지고 맛있는 음식’을 탐하는 것, ‘오래도록 온천에 목욕을 하지 않아 기가 멍치는 것’ 등이 종기의 둘째 원인이다.

마음의 맺힘도 종기를 일으켜 ‘관직을 빼앗긴 것을 억울하게 여겨 등에 종기가 나고’, 기왕에 있던 종기도 ‘노기(怒氣)를 발동하면 더 심해진다’. 곤장 맞아 오른 독(丈毒)같은 외상도 심하면 종기를 일으키는데, 맞은 자의 억울함도 영향을 미친다.

‘한이 맺힌다’, ‘답이 든다’하는 것처럼 종기도 ‘맺히는’ 것이며 답이 언젠가는 불(火)로 변하듯이 ‘막히고 저해

되어 안으로 맺힌’ 것은 살을 썩게 하여 농(膿)을 이루고 터지기 마련이다. 이때 몸의 종기가 터지는 것은 궤란(潰爛)이며, 나라의 근심거리가 터지는 것은 궤란(潰亂)이다. 이것이 밖으로 터지면 다행이나 ‘안으로 터지면(內決) 위중하고’, 터지기 전에 ‘맺힌 것이 심폐로 올라가 그곳에서 끓어터지면’ 곧바로 죽게 된다. 이는 마치 비적때가 궁궐에 난입하는 것과 같다. 때문에 안으로 터질 것인가 밖으로 터질 것인가는 종기가 생긴 환자와 의사를 전전궁궁하게 하는 최대의 관심사이다. 다행히 밖으로 터져 농이 배출되고 나쁜 피가 빠져나가면 일단 고비는 넘기는 것이며, 이후의 관심사는 혈기가 성하여 터진 자리가 원래대로 봉합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선 맺히지 않게 하고, 맺히면 끓지 않게 하며, 끓으면 안으로 터지지 않게 하고, 밖으로 터지기 전에 안을 잘 단속하여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대비하며, 밖으로 터진 뒤에는 악혈이 남지 않았는가를 철저히 살피고, 이윽고 좋은 혈기를 성하게 하여 깨끗이 봉합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처럼 종기를 다루는 일은 마치 복잡한 세상사나 정치를 잘 다루는 방법과 같다.

4. 종기의 치료

종기의 역사가 오랜 만큼 그 치료법도 다양하였다. 필자가 검토한 십 여권의 치종서(종기 치료서)로부터 요약하면, 종기가 처음 생겼으나 아직 농이 덜

잡혔을 때에는 소농(消膿)을 위해 인동 덩굴술이나 쑥뜸을 쓰며, 기왕 농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에는 빨리 곱도록(促膿)하기 위해 오래 묵은 술이나 쇠똥을 대워 붙인다. 『정조실록』을 보면 혜경궁의 종기에 우분고(牛糞膏)를 만들어 붙이기 위해 전생서(典牲署)의 검은 소를 들여다 기른 이야기가 나온다. 비록 희귀한 검은 소의 것이지만 왕실에서도 쇠똥을 쓴 것이다.

곱은 것이 빨리 밖으로 터지게(自潰)하려면 투농산(透膿散)을 복용하거나 공양단(攻瘍丹), 사람 똥을 붙인다. 농이 무르익어 칼로 절개할 때에는 열, 통증, 무르익은 정도, 뿌리의 유무를 잘 판별하여 칼을 댈다. 이때 시기를 놓치면 안된다. 지나치게 곱으면 속으로 터질 것이며, 속으로 터지면 '사생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효종의 경우처럼 종기에 개도(開刀)를 한다는 것이 혈락을 범하여 피를 멈추지 못하면 역시 환자는 위중해진다.

이 때문에 절개술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기술에 속하였다. 메스에 가까운 모양을 한 특수한 침을 사용하여 과감한 절개술을 선보였던 임언국(16세기)이나 백광현(18세기) 등은 목숨이 그리 아까울 것이 없는 주위의 천민들이나 말을 상대로 절개술을 익히고 나서 양반들을 치료하였다.

사실 복약이나 탕욕 같은 사치스런 치료법은 일반 백성들에게는 치료자원이어서는 거의 무의미한 것이었으므로

민간에서의 종기치료는 주로 침술에 미세한 침을 놓는 일반적 침술과는 다른 절개법으로 이에 사용되는 침도 메스에 가깝다)과 속방(俗方)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같은 현실적 필요성 때문에 민간에서 외과적 종기치료술이 발전하였다.

곱은 것을 절개하기가 어려울 때는 인침이나 질침도 썼다. 인침(人鍼)이란 사람의 입을 침에 비유한 것으로 '종기를 빠는' 치료법이며, 질침(蛭鍼)이란 거머리를 종기에 대어 고름을 빨아내는 치료법이다. 제주도 같은 지역에서는 '배말'이라는 흡인력이 강한 조개류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5. 요약

죽음과 일상의 삶을 지배하는 질병에 대한 인간의 태도는 알게 모르게 관념 속에 뿌리 내린다는 점에서, 마음의 병이든 나라의 병이든 '땀히고 곱아 안으로 터지지 않도록' 잘 단속하고 시기를 기다려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우리의 일상적 관념은 종기에 얽힌 담화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오늘날 종기가 중요한 질병으로서의 자리를 잃은 것은 위생관념과 항생제, 소염제의 보급 덕분일 것이다. 그러나 해방을 전후한 시기의 기록이나 회고담에도 종기투성이의 아이나 종기 빠는 늙은이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그리 오랜 이야기만은 아니다. 卞